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6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2

사우디아라비아(Kingdom of Saudi Arabia)

I. 일반개황

면적	2,150천 km ²	G D P	3,736억 달러(2007년)
인구	24.3백만 명(2007년)	1 인 당 GDP	15,396 달러(2007년)
정치체제	왕정 (정교일치)	통화단위	Saudi Riyal(SR)
대외정책	친서방, 온건노선	환율(달러당)	3.745(2007년)

-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년 기준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22%에 달하는 2,643억 배럴의 석유(세계 1위)와 3.9%에 달하는 7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세계 4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부국임.
- 경제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취약점이 있으나, 국제원유가격의 기록적인 강세에 힘입어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음.
- 정교일치의 국왕 중심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디는 이슬람의 발상지로, 정통 와하비즘 중심의 엄격한 이슬람 관습을 유지하고 있음.
- 2005년 8월, 왕위를 계승한 압둘라 국왕은 전통적인 친미관계를 지속하고 신중한 정치,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민간부분 경제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가 인프라 확충, 서민층의 생활수준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경제의 탈 석유화를 도모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제성장률	7.7	5.3	6.1	4.3	3.5
재정수지 / GDP	4.5	11.4	18.4	21.4	12.6
소비자물가상승률	0.6	0.4	0.6	2.3	4.1

자료: IMF, EIU.

□ 경제성장세 다소 둔화, 그러나 '08년 이후 회복 전망

- 2003-06년 사우디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지속, 내수 증대 및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평균 6.5%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2007년에는 유가 조정을 위한 자발적 석유감산으로 성장률이 다소 저하되어, 3.5%의 경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됨.
- 2008년에는 석유증산 및 비석유산업의 호황, 정부 및 해외 투자 확대에 힘입어 6.0%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흑자기조 유지

- 재정수지는 2003년 96억 달러의 흑자 전환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개혁에 힘입어 꾸준히 개선되어, 2006년에는 GDP 대비 21.4% 까지 대폭 확대되었음.
- 2007년에는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되면서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2008년에는 재정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석유부문의 증

산 및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GDP 대비 재정흑자 비중은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세

-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생필품 가격 조정, 외국인 근로자 대거 유입을 통한 임금 인하 등에 힘입어, 2003년 이후의 고성장 속에서도 2% 미만을 유지해왔음.
- 2007년에는 미 달러 페그제에 따른 리알화 저평가와 수입물가 상승, 부동산 임대료 급등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4.1%까지 상승하였으며, 이 같은 추세는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 정책

[구조적 취약성]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 사우디 정부의 산업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석유산업이 총 GDP의 45%, 재정수입의 90%, 수출의 85-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 경제구조가 편중되어 있어, 유가 변동에 경기가 급격히 변동되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산업별 GDP 구성비('06년 기준): 석유가스(47.8%), 서비스업(33.7%), 제조업 (9.5%), 건설업(4.7%), 농림수산업(3.3%)

[성장 잠재력]

□ 중동의 정치, 경제 중심국

-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년 기준,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22%에 달하

는 2,643억 배럴의 석유(세계 1위)와 3.9%에 달하는 7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세계 4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부국이며,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국토와 2천4백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한 중동의 정치·경제 중심국가임.

- 에너지 산업에 경제 동력이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보유 자원 자체가 동국의 큰 성장 잠재력이 되고 있음.

[정책성과]

□ 비석유부문 및 민간부문 경제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구조의 탈석유화 도모

- 사우디 정부는 최근 유입된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강력한 경제 구조 다원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은 크게, 5대 경제신도시 개발, 석유화학산업 육성, 국영 광업공사(MAADEN) 중심의 광업개발, 기타 제조업 및 관광산업 등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및 교육 프로그램 개혁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압둘라 국왕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 석유산업 위주의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주요 성과로는 총 270억 달러 규모의 킹 압둘라 경제도시 (King Abdullah Economic City, KAEC) 개발을 들 수 있으며, 중북부 지방의 물류 중심 경제도시(Prince Abdul Aziz Ibn Musaed Economic City, PABMEC) 개발 프로젝트(총 80억 달러), 에너지 및 노동력 기반산업 중심의 지잔경제도시(Jizan Economic City, JEC) 개발 프로젝트(총 300억 달러), IT·지식기반 도시인 메디

나 경제도시(Medinah Knowledge Economic City, MKEC) 건설 프로젝트(총 70억 달러)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이 같은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2003년 7.8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외국인 투자 규모가 2006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183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음.

□ 민영화 정책 적극 추진

- 압둘라 국왕은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 주요 성과로는 ① 2002년 사우디전력공사(SEC)의 민영화, ② 2002년 사우디텔레콤(STC)의 증권시장 상장, ③ 2007년 사우디항공(Saudi Arabian Airlines) 케이터링 부문의 민영화를 들 수 있으며, 현재 사우디 국영광업공사(MAADEN), 사우디 국영석유회사(ARAMCO)의 민영화 작업이 추진 중에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 상 수 지	28,049	51,927	90,060	99,067	91,938
경 상 수 지 / G D P	13.1	20.7	28.5	28.3	24.6
상 품 수 지	59,376	84,948	126,117	147,391	148,819
수 출	93,244	125,998	180,712	211,305	229,990
수 입	33,868	41,050	54,595	63,914	81,171
외 환 보 유 액	22,859	27,541	26,760	27,765	34,014
총 외 채 잔 액	24,990	27,800	33,700	46,880	54,220
총 외 채 잔 액 / G D P	11.7	11.1	10.7	13.4	14.5
D . S . R .	2.5	2.0	1.9	2.0	2.0

자료: IMF, EIU, IIF.

□ 경상수지 흑자 확대

- 상품수지는 고유가에 기인한 석유 수출 확대에 힘입어, 2003년 594억 달러 수준에서 2007년 1,488억 달러까지 대폭 확대되었음.
- 경상수지도 2003-06년 연평균 52.3%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2007년에는 사우디 정부의 자체 석유 감산 시행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전년대비 다소 축소되어 총 GDP의 24.6%인 91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석유 증산에 따른 수출 확대, 해외근로자 송금액 유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13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 상품수지: 1,261억 달러('05) → 1,474억 달러('06) → 1,488억 달러('07)
 - 소득수지: 1백만 달러('05) → 6억 달러('06) → 63억 달러('07)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 증가, 낮은 D.S.R 등 외채상황은 양호

- 외환보유액은 2005년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FDI 유입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7년말 외환보유액은 34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458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FDI: 121억 달러('05) → 183억 달러('06) → 165억 달러('07)
 - 외환보유액: 268억 달러('05) → 278억 달러('06) → 340억 달러('07)
- 외채 규모는 외자도입을 동반한 대규모 공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수행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동시에 대외자산 규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상환 불능 위험은 매우 낮은 편임.
 -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SAMA(Saudi Arabian Monetary Agency)는 2006년말 기준 대외자산 보유액이 2,22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 D.S.R.도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환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정치 안정]

□ 압둘라 국왕의 안정적 국정 운용 및 점진적 개혁 프로그램 추진

- 사우디는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 바탕을 둔 회교율법인 Shariah를 국법으로한 정교일치의 절대군주국으로, 국왕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행사하며, 종교 수장을 겸하고 있음.
- 압둘라 국왕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하여 이라크 전쟁 수행 등으로 어려워진 국민 생활수준을 다시 끌어올리고, 고질적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제 육성, 경제 인프라 건설, 교육체계 개편 등 점진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국왕승계절차에 대한 개혁 추진

- 압둘라 국왕은 2006년 10월, 국왕 및 왕세제 유고시 왕실위원회 (Allegiance Institution)에서 국왕을 선출하도록 하는 국왕승계법안을 제정하였음. 이는 사우디 지배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왕권 승계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기인함.

[국제관계]

□ 긴밀한 대미 관계 유지

- 9.11 테러에 사우디 국민이 대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조짐이 있었으나, 이후 이라크 전쟁 수행 과정에서 사우디가 미국정부의 요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사우디 정부 또한 왕정전복을 노리는 2003년의 리야드 테러사건 이후 극단 이슬람 저항 세력 척결을 위해 미국과 협조하면서, 양국 간 외교 관계는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 단, 국민 대다수가 두터운 반미감정을 가지고 있어, 사우디 왕정은 이러한 국민 대다수의 반미감정 부응 필요성과 왕정 존속을 위한 현실적인 대미관계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이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있음.

□ 이란, 시리아와의 갈등 지속

- 이란과 수니(Sunni)-시아(Shia)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05년 강경보수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대통령 취임 이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이란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음.
- 레바논에서는 2006년 전쟁 후, 친미 정부를 지지하는 수니파 세력과 반정부 조직인 시아파 헤즈볼라간의 소규모 테러분쟁이 지속되면서 이를 지지하는 사우디와 시리아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음. 그러나 2008년 5월 정치적 중립인사인 미셸 술레이만(Michel Suleiman) 군 참모총장이 제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정파 간 화합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양국간 갈등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 수니사상 중심의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 사우디는 수니사상을 근간으로 한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로,

특히 정통 이슬람 원칙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와하비즘(Wahhabism)을 국정의 근간으로 하고 있어, 중동의 선진 GCC 6개국 중에서도 가장 이슬람적이고, 금욕적이며, 보수적인 사회 문화를 지속하고 있음.

- 음주, 음악, 극장, 공공집회 등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여성의 운전, 남편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단독 외출 또한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종교적 편중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과 과정의 60% 이상이 이슬람 종교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우디 박사학위 소지자의 60% 이상이 이슬람 종교학 박사임.
- * 9.11 테러 주범 중 사우디 국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및 사우디 정부는 지나친 종교교육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양성하고 테러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보수 왕족과 종교지도자들의 반대로 별 진전이 없는 상태임.

□ 부의 왕족일가 편중 및 실업률 증가에 따른 청년층 불만 증가

- 70~80년대 고유가로 인해 풍족한 생활을 맛보았던 사우디 국민은, 걸프전 등의 여파로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경제적 삶의 질이 낮아진 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음. 특히, 철저한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층을 중심으로 왕족의 부와 권력 독점 및 친 서방정책을 비판하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
- 단, 이러한 불만이 정부 전복을 노리는 테러 단체에 대한 지지로까지 표출될 정도는 아니나, 사우디 정부는 '경제성장과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경제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이러한 불만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실제로 압둘라 국왕은 취임과 함께 지난 20년간 동결되었던 공무원 및 군인 급여를 일괄적으로 15% 인상하고, 2006년 4월에는 수송용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 한 바 있음.

□ 높은 실업률

- 총 인구의 50%가 21세 미만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2007년 실업률은 11.2%를 기록하였으나, 실질실업률은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사우디 정부는 2005년 자국민 의무고용비율을 75%로 고정하는 등, 산업인력 자국화(Saudization)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사우디 인구가 연평균 3%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현 실업률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소수 시아파 차별 문제 상존

- 국민의 약 10% 정도로 추산되는 시아파는 사우디 동부의 주요 유전 지대에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음. 이들은 병역의무가 없고, 정치 외교 분야 공직 참여, 여행, 거주 등에 제한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들 시아파 국민 중 일부가 사우디 왕정 전복을 노리는 Al-Qaeda 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2등급 (2006. 10) → 2등급 (2007. 10) 유지
- S&P : A+ (2006. 4) → AA- (2007. 7) 상향조정
- Moody's : A2 (2006. 10) → A1 (2007. 7) 상향조정
- Fitch : A (2004. 11) → A+ (2006. 8) 상향조정
- ICRG : 25/140 (2007. 5) → 31/140 (2008. 4)
- I.I : 42/174(2007. 9) → 40/174 (2008. 3)
- Euromoney : 36/185 (2007. 9) → 36/185 (2008. 3)

-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사우디 정부의 건실한 재정상태 유지, 경제개방 노력,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 시행 등을 반영하여, 지난 2006-07년 동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였음.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전액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전액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 인수 가능

3. 외채상환태도

□ 외채 리스케줄링 사례 없음

- 전후 복구 작업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에 90년대 중후반 외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별 문제없이 상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을 기반으로 외채 조기상환에 적극 나서고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사우디아라비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주요 품목
수 출	2,093	2,978	4,026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석유류
수 입	16,106	20,552	21,164	원유, 석유화학제품
합 계	18,199	23,530	25,190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62년 10월 16일(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 문화협력협정('75), 경제·기술협력협정('75), 항공협정('84),
항공운수·소득면제협정('90)
- 우리나라와의 2007년 교역규모는 약 252억 달러에 달함.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을 중심으로 약 40억 달러, 수입은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약 212억 달러를 기록함.
- 해외직접투자('08년 3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176건 71,685천 달러

V. 종합의견

- 세계 1위의 석유 자원(2,643억 배럴)을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는 2003년 이후 지속된 국제유가의 기록적인 강세에 힘입어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있음.
- 2005년 왕위를 계승한 압둘라 국왕이 전통적인 친미관계를 지속하고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 및 실업문제 해소를

목표로 산업다각화, 민간부분 경제 육성, 대규모 경제 인프라 건설 추진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03년 리야드 테러사건 이후, 왕정 및 사회 안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활동도 200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어 추세이나, 국민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반미감정과 정부의 친미 정책간의 괴리, 높은 실업률과 왕족 일가로의 극심한 부의 편중 등을 비판하는 청년계층의 확대, 소외받는 10%의 시아파 국민의 민심이반 등은 사회 안정을 위해 사우디 정부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상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별신용 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B1 등급으로 평가코자 함.